

전여대협 4월 사업계획서 (1차)

3·19전여대협 총력 투쟁과 4/2 총궐기, 4/3 민중대회를 성사시켜낸 그성과를 그대로 받아안고 4월을 계획하고 결의하자!

1. 객관정세

-미일제의 전쟁책동이 5월말 페리보고서 제출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일정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오면서 수순밟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차리가 생화학 무기공장이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더욱 앞장서서 이복을 고립하기 시키기위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더불어 김대중 사대정권과 함께 반복모략책동을 지속적으로 벌어나갈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4월부터 5월까지 RSOI 실전훈련, 미일의 군사체제 강화회담등 한미일 군사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전쟁책동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탄압이 한총련과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탄압을 진행할 것입니다.

96년 사상최대의 검거자를 만드는 살인적인 진압에서도 미국은 그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김영삼정권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한총련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대책위를 구성하기를 요청하면서 4월 중순이면 FBI 테러담당관이 방한을하여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총련의 이적성 부각을 중심으로 다른 민민단체와의 연대선을 차단할 것입니다. 공공연맹 또한 4월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공익성을 강하게 부각시켜 이데올로기적 탄압을 강화할것입니다. 전체적인 민중에 대한 폭발적인 투쟁의식은 농민대회에서도 보여졌듯이 투쟁하는 세력에 대한 무조건 검거작전으로 투쟁의 폭발성을 차단하려 애쓸 것이며, 한편으로는 운동권 세력의 분열을 조장하며 재야운동세력과 운동권세력의 정치권 인입시도나 개량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운동권 세력의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2. 여성주체정세

여성실업자 조직의 '희망선언' 결성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다양한 계급 계층의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권의 요구에서부터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조직적으로 풀어가려는 모습이 4월이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이에 여성운동세력의 핵심부대인 학생회 단위는 여성단체와의 활발한 연대투쟁을 제기하고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노,농,학을 중심으로 운동세력의 핵심부대를 묶어 세워 나갈 것을 준비해 들어갈 것입니다.

정권에서 규정한 3월 한총련 탈퇴시한을 넘기면서 한총련 대대와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의원 탈퇴공작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실적을리기에 급급한 정권은 약한 단위를 공략할 것이며 그것을 여학생회라고 판단하며 공작을 해들어올 것이지만 신념의 강자인 여학단위의 대표자는 탄압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투쟁으로 극복해 갈것입니다.

3. 총기치

민족자주사상을 나의것으로 무장하여

전여대협으로 통큰단결,대중적 자주교류 성사하고 광범위한 여성민중연대 실현,전여대협 총회를 투쟁으로 치뤄내어

주한미군 철거, 남과 북 해외가 함께하는 정신대 문제해결 투쟁의 결정적 국면창출의 시작을 선포하자!!

4. 사상적 과제

-민족자주 사상을 완전히 나의것으로 체득하자.

★ 방도: 한총련과 전여대협 총노선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자.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여성의 삶을 따라 배우자.

5. 조직적 과제

-방중과 3월 투쟁의 성사를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와 기층 조직건설, 강화로 모아내자!!!

<일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과제>

★ 대중관을 바로세우자 - 1학교 1여성단체 연대를 준비하고 실현하자.

★ 투쟁 중심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자. - 시기별 제안되는 투쟁을 임하는데 있어 자신의 결의서를 모아내고 여학단위의 고유한 투쟁을 수,금집회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자.

★ 사업작풍의 혁신을 내어오자.

- 일주일 조직운명을 37제로 운영하자.

이는 일주일 조직운영에서 70%는 기층에 내려가 하방을 진행하여 지도사업을 조직화하고 나머지 30%는 중앙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않고서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기간 진행해온 사업을 과감성있게 혁신하자.

아직까지도 10년전 제안하여 만들어진 사업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빨빠르게 자주적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 여학우의 정서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여 똑같은 사업을 준비하더라도 다양한 고민을 진행하고 철저한 검토속에서 시기상 뒤떨어진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대중사업과 투쟁을 고민해 봅시다.

<1간부 1소모임 조직화를 실현하기위한 과제>

★ 다양한 성격을 가진 소모임을 건설하자.

- 총여학생회나 여학생회의 중앙간부의 자기 대중을 가지자.

간부의 활동력을 높여내는데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간부의 부서별 역할을 중심으로 자기 핵심거점(과나 동아리)을 중심으로하여 자기 대중을 마련하는 것으로 2~3명이나 3~4단위로 건설한다. 이러한 고민이 제출되어지는 것은 제기되는 투쟁과 해야할 일은 많은데 그것이 모두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여학생운동단위의 일꾼이 없다는 객관적 상황이 선별적 투쟁을 하거나 포기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층을 묶어 다양한 대중투쟁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조직강화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1)수요선전을 위한 할머니 지킴이단- 지역별로 대부분 할머니들이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켜내면서(할머니들이 몸이 아프시고 많이들 외로워 하십니다.) 수요선전이나 선전물 부착,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합니다. 관련 학습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2) 금요일집회를 위한 자주여성 자주독립단- 기지촌 여성의 삶을 학우대중과 함께하며, 주미첼 투쟁을 금요일을 중심으로 실천투쟁을 진행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역사와 범죄, 기지촌 형성과정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일주일 단위로 선전물이나 유인물, 집회 등으로 수위를 높여내면서 활동을 진행합니다.

3)조국통일을 위한 자주교류단- 일년의 지속적 흐름을 가지고 자주교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자주교류단을 모아 그단위를 중심으로 학우들 의사개진이나 서신작성, 조국통일에 대한 학습 등을 진행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등을 학습해 갑니다. 이단위는 전학년을 중심으로 하는것도 좋지만 새내기 사업으로 가져가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한총련 산하의 어느 학교 학생회에서 자주교류에 대한 의사개진을 했을 때 방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에서부터 시작된 남과 북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느낄 정도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자주교류를 학우들속에서 보위받으며 진행합시다.

4) 노학연대 실현을 위한 노학연대 실천단- 졸업을 앞둔 4학년이나 직장인이 많은 야간학부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지역별 여성노동자 투쟁하는 노조에 지지, 지원을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예비 실업자 대열로 들어선 졸업반 학우들을 중심으로 졸업후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공동의 활동상을 조직화합니다.

5) 농학연대 실현을 위한 농학연대 실천단- 민중연대 실현의 전면화를 위한 99년은 예년처럼 여름농활에서의 분반활동 조직화만으로는 실현시킬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농활이나 계절별 농활에서도 여학단위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여성농민들의 삶을 알아야 진정한 연대가 실현될수 있으므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학습도 진행합니다.

● 전학년 전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해왔던 예년과 달리 적은 소조단위로나 특정한 학과를 중심으로 소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일단 소모임의 색깔이 명확하여 학우들을 조직화하기 쉽고 너무 광범위하게 구성되지 않다보니 일장이나 활동을 하기가 쉬우며, 전문적인 여학운동의 세분화로 다양하게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모임을 운영하는속에서 간부들의 관성화나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기내용 부재현상을 극복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여학생회의 구체적 자기 대중이 확보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6. 대중투쟁적 과제

-반미자주화 투쟁영역: 금요일집회를 일상화시켜내는 속에서 주미첼 투쟁을 진행합니다.

-반과소민주화 투쟁영역: 수요집회를 중심으로 김정권의 친일성을 폭로하고 여성실업의 가속화현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려내면서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성과 사대매국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투쟁을 조직화합니다. 더불어 한총련 탈퇴공작과 탄압의 양상등도 수요일을 중심으로 모아냅니다.

-조국통일 투쟁영역: 남과 북, 해외가 함께하는 정신대 문제해결투쟁이라는 사안으로 광범위한 자주교류를 선포하고 진행합니다.

-연대 투쟁영역: 1학교 1여성단체 연대를 실현합니다.

7. 핵심과제

1) 5기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4월 24일<가>)-당면정세 규정: 98년에도 그랬듯이 대표자 총회를 둘러싸고 정권의 5기 건설탄압은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50만 여학우의 힘과 지혜로 주동적이고 대담한 준비로 투쟁으로 사수할 것에 대한 결의를 드 높혀내자.

-총기치

5기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 성사! 50만 여학도의 2천만 여성민중의 등불선언!99년 대격돌! 전여대협 의장님을 중심으로 5기 전여대협의 자랑스러운 이름으로2천만 여성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의 선두에서 원칙을 틀어쥐고외세를 몰아내고 반민중, 반여성, 반통일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에서 한치의 물러섬없이자신의 모든 것을 오로지 민중을 위해 다바쳐 갈것을 결의하자!!

-의의

①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 단결의 구심인 전여대협을 50만 여학우의 힘과 지혜로 세워내는 자리입니다.

② 전여대협 총회 성사를 기점으로 2천만 여성민중에 대한 등불임을 선언하고 여성민중의 삶을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혀갈 것을 선언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③ 총노선 토론과 확정으로 99년 5기 전여대협 핵심적 진로를 결정하여 힘있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④ 지속적이고 다양한 여성민중과의 연대실현을 시작으로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투쟁의 든든한 동반자로 서나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⑤ 한길을 가는 여학생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부심과 이후 자신의 결의를 드높여내는 자리입니다.

⑥ 5기 전여대협 의장님을 중심으로 당면시기 전쟁책동 분쇄, 조국통일 완수 사대매국정권 김대중 정권퇴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⑦ 5기 전여대협 건설의 의지로 7기 한총련을 사수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2) 지역별 주한미군 기지 항의방문 투쟁

-시기: 4월 23일 금요일

-의의와 방도: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의 힘있는 결의와 4월 주한미군 철거투쟁을 총화하는 자리로 여학단위의 제안으로 지역총련과 함께 투쟁을 조직화하고 진행합니다.

3) 5기 전여대협 대표자 한총련 불탈퇴 선언

-시기: 4월 17일 한총련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전까지

-의의와 방도: 5기 전여대협 대표자의 이름으로 50만 여학우의 한총련 사수,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선언하는 것으로 선언문과 서명방식으로 진행하고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보장을 광범위하게 학우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4) 한총련 선봉대 조직화

8. 시기별 흐름

1) 1시기(4월 6일~4월 18일)

-기조: 3·19 전여대협 총력투쟁과 4/2 총궐기와 4/3 민중대회의 성과를 조직강화,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성사,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 준비투쟁으로 온힘을 집중하자.

★ 전간부 4월 부서별 자기 계획을 마련하자.

★ 소모임 건설 준비흐름 마련하자.

★ 한총련 불탈퇴 선언과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 수, 금요일에 도서관과 휴게실을 중심으로 유인물과 선전물 부착을 진행하자.

★ 단위별 한총련 선봉대를 조직화하자.

2) 2시기(4월 19~4월 24일)

-기조: 5기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로 전단위의 모든 힘을 집중하자.

★ 한총련 임시 대의원 대회 참관기 선전과 총회 참가 신청서로 참관단위를 조직화하자.

★ 금요일에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 참가를 위한 학교, 지구,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진행하자.

★ 소모임 건설을 위한 간부들의 자기 계획을 총화하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자.

3) 3시기(4월 25일~4월 30일)

-기조: 총회성사를 통한 지도구심 건설에 대한 자긍심으로 여학생운동 대중화 실현을 위한 기층조직의 건설토대를 구축, 4월 투쟁을 힘있게 정리하고 5월 투쟁의 결의를 세워내자.

★ 소모임 주체마련과 조직화를 마무리하자.

★ 4월 투쟁의 평가와 5월 투쟁에 대한 결의를 학교, 지구, 지역별 결의대회 조직화로 총화하고 4월에 대한 평가와 5월에 대한 간부들의 결의서를 작성하자.

9. 주별 선전의식화 내용

1) 4월 6일~4월 12일: 3·19 전여대협 총력투쟁 평가와 4/2, 4/3에 대한 평가를 선전하자.

한총련 임시 대의원 대회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자.

2) 4월 13일~4월 18일: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 선전물 부착과 한총련 대의원 대회 참가 결의

서를 학교 곳곳에 회장님의 이름으로 부착하고 유인물 작업 등을 진행하자.

3) 4월 19일~4월 24일: 한총련 임시 대의원 대회 참관기와 총회 조직화를 위한 선전활동에

박차를 가하자.

4) 4월 25일~4월 30일: 전여대협 총회 참관기와 소모임 운영에 대한 선전을 진행합니다.

★주별 흐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전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단위별로 요구되어지는 지점이나 내용들도 적극 선전해 넘시다.

10. 4월에 요구되어지는 읽을거리

1) 대의원 대회와 총회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참가를 위해 총노선을 반드시 숙지합니다.

2) 기지촌 여성과 주한미군 주둔배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학습을 통해 자기것으로 만듭니다.(단위별로 찾아보면 충분히 학습내용을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3) 여성운동이 정신대문제 해결투쟁을 받아안은 계기에 대해서와 정신대 문제를 바라볼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차후 내용물 제출예정입니다. 4월 셋째주쯤으로 될 것 같습니다.)

민중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